

[목회자 모임]

## 십자가로 가는 길 - (2) 부활이요 생명이니

2020. 4. 17. 이현래 목사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마르다는 자기의 어떤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왜 저런 짓으로 허비하느냐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나의 장사할 날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뵈자고 했다. 그러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인자가 들려야 되겠다는 말을 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서 난리인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속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자기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12:13)라고 난리가 났다. 한쪽에서는 지금 인기가 흥천해 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세가 돌아가는 것 같다. 왜 그런가? 두 길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 한 쪽에서는 행하신 능력을 보고 세상적인 기대를 가진 것 같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따라왔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 자기가 와서 로마를 치고 정복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길이 두 가지가 아닌가?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막 좋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초창기에 그런 경험을 해보았다. 어떻게 하다가 형제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왔다. 그 형제들이 아주 순수했는데, 다 자기들대로 소망과 계획이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다. 그 중에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였는지 아는가? 여름집회를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나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버린 사람도 있다. 그 말을 듣고 문\*명이나 박\*선이 따로 있는가? 저래서 되는 것이라고 해서 참 조심스럽게 왔던 분인데 가버리고 말았다.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존경받는 분이셨다. 은퇴한 후였는데 그때 충주 형제

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순수하게 생각하셨다. 이런 데도 있는가 하여 그때 문경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거기에 오셨다. 나이가 70세가 넘으셨고, 그때 우리는 40대였다. 그분도 워치만니 서적을 많이 읽으셨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들렸을 것이다. 말씀은 좋은데 이 무리가 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다른 길로 가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은 참 점잖은 분이시고, 교단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렇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만날 때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고 만 이야기하셨지 절대로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다. 한 번은 이재승형제가 그때 마침 딸이 대구에 있어서 찾아가니까李목사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교통이 끊어지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새로 목회하실 분도 아니지만 말년에 이 말씀이다 하고 왔는데, 그 일로 걸려서 그만 가버리셨다. 지금도 늘 안타깝다.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다. 그런 일도 있었다.

또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하고 내려오니까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놀라지 않았겠는가? 나로서는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형제들의 순수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성장하면 관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을 보고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그날 결혼식장에 오신 분들이 모두 점잖은 분들이니까 상당히 걸려서 갔던 그런 일도 있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예수님만큼 그렇지 않지만 그 비슷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해서 예수님도 이런 선택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이야 놀라운 기적도 행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따라다니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향유를 붓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의 길은 점점 좁아졌다. 좁아진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점점 좁아져서 지금 죽으러 가는 길 밖에는 없다. 세상이 꼭 핍박을 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높아져도 그렇다.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종교적인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

게도 못하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갈수록 점점 더 길이 좁아져서 13장부터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이 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은 부활로 가는 길인데, 부활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좋지 않다.

부활사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겼는가? 이스라엘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포로기에 있을 때, 이런 사상이 발전했다고 한다.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고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보통 일인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은가? 광야 40년을 통과했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는가? 이런 역력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죽음까지 가는 그런 절망이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하던 때였다.

우리는 일제가 36년 밖에 안 되지만 그 기간에도 처음에는 저항하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다 동화되어서 인정하였다. 애국적인 분들은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으로 입국을 하자고 해서 안창호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무지해서 그렇다. 백성이 너무 무지하고, 나라가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문명으로 앞선 나라에게 먹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다. 거기서 태극기 들고 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백성의 교육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교육입국이라는 것이다. 안 그러면 싸워야 하는데, 싸우면 당해낼 수가 있는가? 총칼 앞에서는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그분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싸움을 안 하고 승화시킨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내가 C.C.C.에 들어가 김\*곤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6.25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다. 6.25때 가족이 몰살당했는데, 거기서 혼자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집에 오니까 어린 아기가 있는 상태였다. 그것을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이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인간성의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오기와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6.25 당시에 남한에는 남로당의 잔재가 거의 없었다. 완전히 소탕된 상태였다. 순수하게 남로당원으로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고, 지방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총을 가지니까 보복했던 것이다. 전

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심한 곳에는 한 동네가 몰살을 당한 데도 있다.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두 가정이 완전히 몰살되었는데 그런 가정이 허다했다. 한 사람이 먼저 자기를 괴롭혔다고 해서 인민군이 오니까 총을 받아서 가서 7명을 논바닥에 세워놓고 총살을 시켰다. 그 뒤에 경찰이 다시 가보니까 자기 집 식구들이 다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식구도 묘하게 7명이다. 모두 논바닥에 내놓고 똑같이 총살처형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만 남았다.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다. 사촌 형수의 조카다. 사돈 간으로 가까운 사람이다. 자기들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런 일이 다 안 나타나서 그렇지 굉장히 많았다. 군대에 가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金목사님은 그것을 승화시킨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를 믿게 해야 저 오기와 꼬라지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족복음화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 그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린 딸을 두고 가버렸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해야 했다. 재혼을 하면 계모 밑에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옛날 말에 최고의 저주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자식을 두고 상처하라는 말이 최고 저주의 말이라고 한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분을 보고 정치를 했다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전혀 딴 판이다. 그분을 전혀 모르고 한 말이다.

어떻게 하든지 방법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분이셨다.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는 분은 처음 보았다. 항상 손에는 노트가 들려 있다. 그 노트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어디를 가면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궁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 메모를 했다가 본부에 돌아오면 서무실에 그것을 시행하라고 내린다. 서무실 직원들이 죽으려 한다. 일을 계속해서 오더를 낸다. 생각에 떠오른 것을 모두 오더를 낸다.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한쪽에서는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길이 다 막혀서 갈 길이 없어졌다. 그래서 죽을 일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게 되었다. 순교자들이 죽은 것과는 아주 다르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뻔히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다른 일로 왔는데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그렇게 몰려가는 것이다. 세상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런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부활에 대해서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방송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부활절 설교를 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보았다. 지금도 명 설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가슴을 치면서 왜 이것을 못 믿느냐고 했다. 왜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고 하는데 저러니까 목회에 성공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도 안 오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왜 부끄러워하는가? 보편지성 때문에 그렇다. 지성에 맞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 지성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편 종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종교에는 어디도 이런 종교가 없다는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교는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보편 윤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 부활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래서 사람이 모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

부활 신앙은 결국 절망 속에서 나온 것이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있지 않은가?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겠는가? 여기서 나온 것이 부활 신앙이다. 이것이 포로기 중간기에서 묵시록적으로 발전하고 발전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왔고, 그 영향력은 신약시대까지도 가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데서 나온 사상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자리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생기는 것이다. 살 소망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로 살 소망이 없어서 이런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누가 말리겠는가?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릴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어찌하겠는가? 우리는 다말을 말릴 수가 없고 라합을 말릴 수가

없다. 뜻을 말릴 수가 없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오신 길이 알고 보면 그런 길이다. 그런 길에서 예수가 오셨다. 이분 자체가 그런 것이다. 이분 자체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의 특색이기도 하고 신약의 특색이기도 하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예수를 소개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무엇이든지 종교적인 입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생명에서 해석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종교성이 싹 사라지고 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1:14)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세우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렘31:31,33)라고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결국은 신약이다. 사탄의 말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죄다. 사탄의 말이 육신이 된 것이 죄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롬7:24)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다. 관계가 틀어진 문제는 회개하면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죄가 성육신이 되었다는 말이다. 벌써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롬7:24)는 이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활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아주 신선한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는 것이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해방이 되었다. 사람으로 안 되는 일도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이것이 문제다. 내가 '그

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이것이 문제였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따라오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가 문제였다.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이 소용이 없다. 'In Christ!' 바울 서신의 키 워드가 'In Christ'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바울의 모든 말의 전제는 'In Christ'다. 'In Christ'가 없으면 이것들은 모두 허망한 말이 되고 만다. 답이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당연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당연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정죄함이 없다. 당연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

미국에 가면 영어를 못하니까 대단히 답답하다. 왜 사람들이 칼(KAL)기를 많이 타는가 하면 편하니까 돈을 더 주고도 탄다. 한국말이 통하기 때문이다. 외국 비행기를 타면 말을 못하니까 다 바보가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얻어먹으려고 해도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아무리 웬, 웬 해도 스튜디오스가 못 알아듣는다. 한국말로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 ‘핫? 쿨?’ 이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핫도 아니고 쿨도 아니다. 생 병신, 산 병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비행기를 타면 딱 해방이 되는 것이다. 당장에 그냥 미지근하게 달라고 하면 미지근하게 주고, 따뜻하게 달라고 하면 따뜻하게 주는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어져버린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문제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것을 떼어서 생각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대로로는 ‘죽으면 끝이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죽으면 끝이고 부활은 시작인데 죽음에 같이 있지 않았으면, 죽음에 함께 하지 않았으면 부활에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6:5)고 말한다. 여기서 ‘같은 모양’이라는 말이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말이다.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면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말이니 까 다르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죽어도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죽지 않으면 그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아주 쉽고도 어려운 그런 문제다. 내가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죽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너무 쉽게 계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함께 내가 폭로가 되면 간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뭐가 어려운가? 오히려 어려운 것을 사람들이 따라간다.

부활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의 죄를 사해야겠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다. 피가 있어야 죄가 사해질 것인데 피가 없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다. 교리적으로 말하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죽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들으니까 놀라웠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설교하는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방 안에 앉아서 울었다고 한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와 인간의 종류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을 인정하면 나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4학년이 이 말씀을 듣고 방 안에서 혼자 울었다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다. 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나로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남이 그런 것이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문제는 각자 자기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자기대로 생각할 수밖에 길이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와서 피를 흘렸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와 닿지 않는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와 닿지 않으니까 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길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만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나에게도 살 길을 따로 주신 것 같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6:5)** 우리가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죽겠는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모양이 되겠는가? 거기서 인생의 운명이 발견된 것이다. 원래 사람은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발견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을 보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했는가? 우리처럼 살고 있는 인간들을 놓고 부활을 생각하면 말이 끝이 없다. 성경에도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잘 모른다.

여러분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읽어 보셨겠지만 당장 예수님이 부활할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본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다. 제자들 중에서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다는 사람도 있다. 또 언젠는 나타났다가 언젠는 없어졌다가 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다고 하겠는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어떤 몸을 가졌기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렸는가? 어떤 몸을 가졌기에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기 혼자 문을 열고 닫고 하는가?

바울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는가를 묻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제일 궁금한 일이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아주 또 동문서답이다. **“어리석은 자여.”(고전15:36)**라고 했다. 당연한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자여~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고전15:36,37)**라고 했다.

호박씨와 호박은 다르다. 호박씨를 심는 것이지 호박을 알고 심는가? 호박씨를 심어 놓으니까 뒤로 가서 호박이 열렸다. 그것을 보고 사람이 각기 몸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다 그 몸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호박이 될지 수박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각기 적합한 이름을 준다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대답

이지만 맞는 대답이다.

사실은 어떻게 부활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모른다는 말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다. 죽은 후에도 영이 있다거나 죽은 후에도 산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하더라도 죽은 후에 가는 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때문이 아니다. 천당도 지옥도 우리 조상들에게 다 있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천당과 지옥이 생긴 것이 아니다. 불교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이 부활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도저히 답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었는가?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1:26,28) 땅을 지배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음 때문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다. 형상으로 맞으니까 심히 좋다고 한 것이다. 형상으로서 완전하다는 그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인간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흠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왜 나한테는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씨를 심어야 열매가 열리는 것이 흠이다.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지 씨를 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는가? 왜 나한테 잡초만 나서 이 모양이냐고 하는데, 잡초 씨를 뿌렸으니까 잡초가 나오는 것이다. 새들이 물어 뿌리고 바람이 뿌리고 해서 잡초가 나오는 것이지 흠에 무슨 잡초가 있는가?

형상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해 준 것 같다. 이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형상이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형상이라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헛갈린다.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독립하는 것이다. 형상을 벗어나면 나는 독립이다. 독립

된 나는 불완전하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남자가 레슬링 선수라고 아기를 낳는가? 아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자식을 많이 낳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를 형상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나올지 모른다. 하나님이 웃으면 우리도 웃어야 되고, 하나님이 울면 우리도 울어야 된다. 그러나 운다고 사람을 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겠는가? 사람을 웃는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 형상 외에 다른 것으로 정의할 수 없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었느냐고 물으면 끝이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뭐만 받아들이는가? 실존을 받아들인다. 예수님께서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같이 된다. 어수선한 잔치집이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이 된다. 이것은 실존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떤 실존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교가 다 그렇고 마지막에 가면 그 말이 된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을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내 인생에 안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러면 부활의 효과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해석한다. 자기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물론 당연하게 그렇다.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은 자의 부활이다. 나는 이것을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으로서 우리가 새로 시작되었다. 새로 시작된 것은 무엇인가? 연합된 생명이다. 아담이 혼자 있다가 하와를 만났다. 그것이 진짜 사람이다.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한 짝이 된 것이 진짜 사람이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7)라고 했다. 남자만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자도 지었다는 말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형상이라는 말과 딱 맞는 말이다. 우리는 어차피 형상이지 우리가 실재가 아니다. 내가 생명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는 것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다. 사탄의 근성을 먹었다. 사탄의 속성을 먹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돼버리고 만다. 그렇다고 인간이 사탄은 아니다. 언젠가 사탄이 빠져나가면, 사탄의 생명이 빠져가면,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다. 나는 언제든지 바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바뀌질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그것은 우리 육신으로서의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을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이것이 연합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 6:8)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런 말이 다 거기서 나온 말이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면 그와 같은 모양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이것이 딱 맞는 말 같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이것이 딱 맞는 말 같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우리도 작지만 그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가겠는가? 어떻게 흥내나 내겠는가?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만 된다면, 한 짝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렇게 한 것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6:4) 그 새 생명은 결혼한 삶이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새 생명이 아니다. 설사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새 생명이 아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결혼하면 새 생명이다. 새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재미있었다. 결혼하지 않으면 오십을 먹든 육십을 먹든 항

상 총각이다. 그래서 머리를 상투를 하지 못하고 땡고 다녔다. 어디가도 하대를 받는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대사는 결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덜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립동이라고 한다. 그런데 열 살을 먹어도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고 다니는 것이고, 열 살 먹어도 사람이다. 그런데 오십을 먹어도 혼자 다니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맞는지는 모르겠다.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둘이 합했을 때, 그분과 내가 하나였을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간이 시작된다. 그러면 부정이 없어진다. 인간은 왜 불완전한가? 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흠이 왜 불완전한가? 흠은 완전하다. 씨가 들어오면 흠은 저절로 완전해진다. 씨가 없을 때 흠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지 그것을 보고 흠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불완전하다고도 할 수 없다.

독립한 인생들이 하는 말이 인간은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고 하는 것이다. 홀로 있으면 불완전한 것이 당연하다. 철학자가 된다고 완전하겠는가? 알면 알수록 더 불완전하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불완전한지 완전하지도 모르고 산다. 그것이 오히려 편하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불완전한가? 지혜가 없어서 불완전한가? 지혜가 많을수록 더 불완전해진다. 그런데 결혼하면 완전하다. 결혼하면 아기 낳는 것에 완전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철학을 하나 안하나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예수와의 연합이다. 칼빈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다 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왜 그렇게 주었는가? 아들을 통해서 만유에게 분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분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 안에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안에 연합되면 저절로 분배가 되는 것이다. 분배라기보다는 공유하는 것이다. 연합이 안 되면 공유가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해봤자 되겠는가?

그런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보면 또 너무 신기하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되었다. 이것도 보면 암담하고 잘 모르겠다. 김\*홍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다. 빗쟁이가 되어서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려 나가서 동네 한복판에서 옷을 발가벗겼다고 한다. 사기꾼 목사 보라고 하면서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것은 너무 하다고 해서 팬티는 겨우 입었다고 한다. 그런 일을 다 당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번은 김\*홍 목사님이 곤궁에 처해서 그런지 기도원에 갔다고 한다. 기도원 원장이 목사님은 안찰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단다. 안수기도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다. 안찰기도는 뭔가 했더니 드러누워 있으면 온몸을 만지는 것이 안찰기도라고 한다. 몇 번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꼭 하라고 권하여 할 수 없이 큰 대자로 누웠다. 여자 둘과 원장 셋이 자기 몸을 마구 때리는데, 크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안찰기도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무슨 힘이 오는지 그렇게 아프다고 한다. 박\*선도 처음에 그랬다. 그 사람이 눈 어디를 만지면 너무 너무 아픈데, 그렇게 안찰기도를 한다고 했다.

안찰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언을 주는데 목사님은 미국에 가겠다고, 또 한 가지는 금권이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 빗을 지고 있는데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그런데 무슨 일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미국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초청장이 와서 거기를 갔다는 것이다. 대통령 조찬기도회는 3일간 하는데, 설교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설교를 들어보더니 3일간 내내 하라고 하여 미국에 가서 3일 동안 설교를 하고 왔다고 한다.

또 한 번은 빗쟁이 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고 절대로 누구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교인들은 밖에서 금식기도를 하고, 자기는 방 안에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꼭 만날 사람이 왔다면 문을 두드렸다. 나는 만날 사람 없으니 가라고 했는데 기어코 만나야 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문을 열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어떤 여자가 목사님이 어려운지 알고 금일봉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나중에 금일봉을 뜯어보니 3600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때 당시 지금의 두레마을 산을 400만원 계약금을 걸고 샀는데, 3600만원이 모자랐다. 돈이 나올 길이 없었는데, 3600원짜리 수표여서 그 산을 샀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실패하고, 지금 있는 두레 마을로 두 번째 두레마을 산을 샀다고 한다. 그러니 족집게처럼 맞추었다. 그것을 도대체 뭐라고 하겠는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방언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데 어찌 저런 사람은 저렇게까지 되는지 불가사의한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 목적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는 다른 일이다. 돈은 누가 주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 여자가 지금 결혼한 부인이다. 참 신기하다. 평생 그 여자와 같이 산다. 첫 번째 부인은 아이들과 미국에 갔다. 도저히 이 사람과 못살겠다 싶으니까 갔을 것이다. 아마 간호사였던지 그때는 간호사는 미국 가기가 쉬웠다. 7년 동안 안 오는 사이 이 여자와 결혼을 했다. 친정집이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는 중에 3600만원 수표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결혼하여 같이 산다고 한다. 이런 종교적인 일을 생각하면 한도 없이 많다.

아무리 이런 일이 많아도 하나님 목적과는 관계가 안 된다. 무슨 일로는 하겠지만 하나님 목적과는 관계가 안 된다. 하나님 목적 안에서는 우리 인간은 다 똑 같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 목적을 빼놓고 나면 나는 그런 사람 옆에도 갈 수 없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감히 명함을 내놓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목적 안에 오니까 그 모든 열등감이 사라진다. 나는 기도 응답 못 받아도 좋고, 3600만 원짜리 수표 못 받아도 좋고, 내가 하나님 필요에 쓰일 수 있으면 된다.

부활도 ‘부활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지는 모르지만,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내가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과 하나 되면 부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분이 부활이면 나도 부활이다. 그분이 생명이면 나도 생명이다. 해결이 너무 쉽다. 그분과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칼빈의 그 말이 너무 좋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다 준 것은 아들을 통해서 공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아들 안에 다 있다. 아들과 연합만 되면 다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3000만원을 주고 안주고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 어떤 사람과도 연합만 되면 공유하게 된다. 어떤 여자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 것이 다 내 것이다.

요즘 최\*원 회장과 노\*영 부인이 이혼문제가 생겼다. 부인은 노\*후 딸이다. 최 회장이 딴 살림을 해서 이혼소송을 하는데,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다. 재산이 1조 몇 천억이다. 대어는 큰물에 논다고 상상도 못할 돈이다. 이것을 내놓고 나면 그 기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진퇴양란에 빠진 모양이다. 결혼 후 이혼하면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다 뺏기니까 이혼을 잘 못한다고 한다. 아랍보다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별거 아니고 쉽다. 아랍은 손뼉만 세 번 치면 끝난다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왜 둘이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예수와 우리와의 결혼은 그것과 다르다. 더 영원한 결혼이다. 내가 지난번에 사랑방에 나는 결혼하였다고 써놓았더니 어떤 자매가 '나는 언제 결혼하지요?'하고 댓글을 써놓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 너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겠느냐? 하겠으면 내가 소개해주마. 진짜 좋은 사람이다. 요즘에 참 신랑 구하기 어렵다. 꼭 결혼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아무 소식이 없다. 감을 잡은 것 같다.

이 우주적인 신랑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횡재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것도 아니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분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도 다 결혼해보셨겠지만 뭔가 나한테 뭐가 있으면 까다롭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까다로울 것도 없다. 그냥 무조건 하자는 사람만 있으면 하게 된다.

무조건 결혼을 하자고 오셨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준비할 것이 있겠는가? 그냥 그분이 오라고 할 때 가면된다. 뭘 하라고 하는가?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는가? 혼수를 해서 오라고 하는가? 아니다.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오라고 하는데 뭐가 어려운가?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오라고 한다.

임금에게 시집가는데 뭘 가지고 오라고 하겠는가? 다 버리고 오라고 할 것이다. 여염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왕궁에 갖다놓으면 쓰레기지 좋은 것이 되



겠는가? 가지고 오면 청소하기만 귀찮다. 빈손으로 와야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안 믿는 것은 똑같다. 믿는 것은 무엇만 믿는가? 자기 필요한 그것만 믿는 것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그냥 왔겠는가? 다 믿음을 가지고 왔다. 제자들이 올 때 믿음이 없이 왔겠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왔다. 다 믿음이 있어 왔다. 다 오기는 왔는데 믿지 않더라는 것이다.

성경을 인용하여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다.”**(요12:39,40)고 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못 믿게 했겠는가? 하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중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12: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 빛 안에서 보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세상에서 보면 꿈쩍없이 죽으러 가는 길이다. 거기밖에는 자기에게 갈 길이 없다. 아무리 봐도 예수가 갈 길이 없다. 그런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른 문이 열려지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예수를 믿게 된다. 믿지 못한 예수를 내가 믿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예수를 내가 믿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내가 믿게 된다. 그러면 너무 쉽다. 남이 가져가지 않은 것을 가져가면 너무 쉬운 것이다. 남이 가져갈 것을 다 경쟁하면서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다. 내 몫은 내가 찾아가면 된다. 내 몫이 다 정해져 있다.

이번에 누구에게 그랬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코 구멍을 두 개로 만들었다. 왜 두 개로 만들었는가? 혹시라도 감기가 들면 한 쪽 코 구멍이 막히면 숨을 못 쉬니까 두 구멍을 뚫어 놓았다. 그렇게 세심하게 만들어놓으신 분이 우리 쓸 것을 만들어놓지 않았겠는가?

나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나를 지으신 분은 온전하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억만년이 지나가도 변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귀중하다. 쓰레기 같은데 귀중하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쓰레기나 비슷하다. 진토라는 말이 먼지 티끌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나 비슷하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을 잘 만나면 귀중하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 주인을 잘 만나면 귀중해지고, 주인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쓸모없다. 멸망이라는 말이 쓸모없어졌다는 말이다. 쓸모가 없어졌는데 아무리 좋으면 뭐하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부활을 찾지 말고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면 된다. 찾아봐야 못 찾는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는가? 어떻게 그것을 따라다니겠는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구름타고 가신 분을 내가 무슨 수로 가서 만나겠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갔다.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예수는 영원히 있다. 십자가에 영원히 있다.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을 내가 무슨 수로 찾아가겠는가? 우리와 몸이 다르다고 하는데도 있고, 같다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아내겠는가?

그것을 알아낼 것은 학자들보고 알아내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해보라고 하고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우리 일이지 연구할 것도 안 된다. 나는 연구하지도 못하겠고 공부하기도 틀렸고, 딱 맞는 길로 온 것 같다. 내가 만일 연구하려면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연구를 하겠는가?

이번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 이것이 복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가슴을 치고는 못하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 이것이 복음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